

문예진흥기금은 반드시 늘려야 한다

글_ 신찬균 전 세계일보 주필·문학박사

우리나라 전체 문화예산이 한강 다리 하나 놓는 공사비에도 못 미친 적이 있었다. 그 시절 문화 행정을 이끌어가던 문화공보부는 대부분의 예산을 금방이라도 생색이 나는 공보 쪽에 배려했을 뿐 문화는 항상 뒤로 밀려났다. 또 문화의 혜택도 부유한 문화 창조자에게만 치우쳤고 정작 문화 향수층인 서민들에게는 고급 문화란 그림의 떡이었다.

그렇게 해서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제도가 오늘의 문예진흥기금이다. 극장이나 고궁에 들어갈 때 사는 입장권 안에 문예진흥기금을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나 문화 시설과는 별 인연이 없는 서민들이 부담하고 그들은 비싼 입장료를 내야만 음악회나 전시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오히려 문예기금은 귀족층인 문화 창조자를 위한 몫이었지 김밥을 싸들고 자녀들의 손을 잡고 고궁에 들어가던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제도는 아니었다.

그나마도 진흥기금은 필요할 경우 모금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강제력이 없어서, 한때 극장 측에서는 강제 모금은 위헌이라고 해서 기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미룬 적도 있었다. 더 이상 마땅한 휴식처가 없어서 고궁이나 극장을 찾는 서민들에게 기금을 부담시켜 그 기구한 돈으로 문예진흥비를 충당하기에는 무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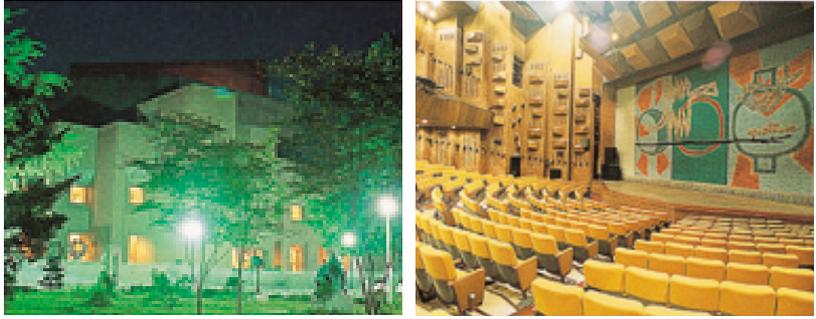
국가 예산이 뒤따라야 하고 공공성 있는 재원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문예

기금 모금조차 금년 말로 끝난다는 방침이다. 1973년 7월 전국 600여 개 극장에서 일제히 시작된 모금을 기초로 조성된 문예진흥기금은 작년 말까지 총 1조 2,575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4,360억원은 적립되고 매년 1천 건 이상의 문예진흥사업에 8천억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었지만, 지원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기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문예진흥원 측의 솔직한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문예진흥기금은 총 신청 건수의 35%만 가능했다. 매년 400억원 이상 되는 진흥기금 제도가 중단되면 문화예술 재원을 확보하기란 지금의 형편으로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12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738명)의 95%가 모금제도 유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재원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인해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불가피한 문화예술 보호육성책의 지속 확대에 대한 기대의 표현이라는 게 문화예술인의 주장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문예진흥기금 재원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계의 기대는 '경륜·경정법'이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불로소득을 바라는 풍조가 지



문예진흥원 예술극장과 대극장 내부

배적이다. 예컨대 복권, 카지노, 경마, 경륜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인간의 정서를 황폐화시키는 이 같은 사행성 사업은 그 필요악 논쟁에도 불구하고 침해된 인간 정서의 치유를 위한 재투자로 바람직하다는 문화계의 주장이다.

그 가운데 '경륜·경정법' 개정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재원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영국에서는 국고와 함께 복권 수익금을 재원으로 문화예술을 Arts Council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만약 경륜·경정 수익금(2003년 목표 2,500억원)의 15~20%가 문화예술계에 배분되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 22일에 열렸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경륜·경정법' 개정안 심사가 보류되었다. 그 대신 국무조정실에서 입법 발의 예정인 '통합복권법' 제정을 통한 대체재원 확보가 문예진흥사업비 확보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더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문화예술계의 절대적인 관심을 모았던 '경륜·경정법' 개정 논란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신설 제정될 '통합복권법'은 경제부처 등 10개 부처가 관련되어 문화 분야 이외의 영역과 또 다른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통합복권법'은 이미 법안이 준비되어 상정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 지원 확대

를 위해 '경륜·경정법'이 반드시 개정되기를 기대했던 문화예술계는 여간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예진흥사업비 확보는 가능하지만 체육·청소년 분야 사업비와도 미묘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후문도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후보들은 문예기금의 대폭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이전 김대중 정부는 전체 예산의 1%는 문화예산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또 이행했다. 지금의 문예진흥기금은 지원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액수다. 또 시중 금리 13%대를 기금으로 한 조성목표액 4,500억원이 현재의 4%대 아래서는 부적절하다.

국민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문예진흥기금 모금을 중단한다면 현재의 영화요금을 내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모금 폐지가 결정되던 2001년 말 영화요금은 1천원이 인상되었다고 한다. 문화예술인들의 주장처럼 모금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경륜·경정법' 개정을 통한 수익금 일부를 문예기금으로 배분하는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그리고 최소한의 실현 가능한 대안임을 강조한다.

마사회가 부처 이기주의에 밀려 당시 문공부와 농수산부 간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을 때 경주용 말이 농축산물이라는 주장에 밀렸던 우를 이번 '경륜·경정법' 개정에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2002 서울공연예술제 작품상, 희곡상, 연기상, 무대에 솔상에 빛나는 화제의 연극!

극단인혁의 <에비대왕>

2002년 서울공연예술제 작품상의 주역 이기도의 밀도 있는 연출감각으로 관객을 한없는 감동으로 몰아넣은 화제작 <에비대왕>이 2003년 새롭게 태어난다.



• 작가 : 홍원기 • 연출 : 이기도 • 출연 : 손병호, 홍원기, 남우성, 박길수, 김병춘, 신현실, 조경미, 이은미, 이승준, 손경원, 김일우 외 16명

- ◆ 일시 : 2003년 5월 29일~6월 8일 오후 4시, 7시 30분
- ◆ 장소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소극장
- ◆ 주최 : 극단인혁
- ◆ 후원 : 여성신문, 한국어성재단,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 문의 : 02-3676-0878, 02-786-2147(아츠커뮤니케이션)
- ◆ 예매 : 1588-7890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 ☞ 일반 20,000원, 대학생 15,000원, 중고생 12,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가족 뮤지컬 <삼신할머니와 일곱 아이들>



우리나라 옛날이야기에 등장하는 삼신할머니는 우리 정서에 스며있는 생명신이다. 이번 공연은 삼신할머니를 소재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회에 만연한 생명경시 풍조에 대한 반성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흥겨운 노래와 춤으로 구성된 뮤지컬 <삼신할머니와 일곱 아이들>은 재미와 더불어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교과서수록작가 이강백일작

현존하는 극작가로서는 유일하게 교과서에(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 <들판에서>) 수록된 이강백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와 극적인 재미를 동시에 선사하고, 부모님들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

국어 교과서 <들판에서>) 수록된 이강백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와 극적인 재미를 동시에 선사하고, 부모님들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

가요와동요를아우르는작곡가최종혁

<내 동생> <열애> <당신도 울고 있네요> <이별이래> 등 수많은 동요와 애창가요를 작곡한 KBS TV 유치원 작편곡 담당 최종혁 선생님이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감탄할 만큼 세대를 초월한 뮤지컬 음악을 들려준다.

- ◆ 일시 : 2003년 6월 12~20일, 평일 오후 4시·7시 30분, 주말 오후 2시·4시 30분, 첫날 4시 낮 공연 없음
- ◆ 장소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 ◆ 주최 : 극단 십년후 & 나무예술기획
- ◆ 문의 : 02-730-3637~8(나무예술기획)
- ☞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2,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2002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귀국전 개최



- 전시기간 : 2003년 4월 24일~5월 4일
- 전시장소 :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제2전시실(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내)
- 참여작가
 - 김영준 : 파주출판도시 공동주거 계획
 - 김종규+김준성 : 헤이리 아트밸리 커뮤니티 센터
 - 민현식+이민아 : 공원+도서관
 - 박헬렌주현 : 헤이리 아트밸리 스튜디오+주택
 - 유규승 : 추모공원과 남골당
 - 이중호 : 박수근 미술관
 - 조성룡 : 파주출판도시 상가지역
- 홈페이지 : www.kcaf.or.kr/artocenter

← 2002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내부 작품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에서는 2003년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2002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의 귀국보고전을 개최한다. 지난해 9월 7일부터 11월 3일까지 이태리 베니스에서 열렸던 제8회 국제 건축전의 한국관 작품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이번 전시는, 당시 현지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일곱 작품들을 모두 전시함으로써 외국의 큰 행사에서만 일회성으로 전시하고 종료하기보다는 국내의 건축관계인들과 학생을 포함한 일반관람객들도 이 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출판작가들과 직접 대화의 장을 만들어봄으로써 건축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보자는 것이 이번 전시를 기획한 목적이다.

전시의 주제는 'NEXT' 로 앞으로 10년의 세계 건축의 양상을 조망해 보는 것이다. 즉 next home, next place, next generation... 등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기술, 새로

운 재료에 대한 건축가들의 혁신적이면서 또한 현실적인 대안들을 모아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세기의 비극적 분단을 뒤로하고 앞으로의 10년은 한반도의 통일을 가져올 것이라 추정되며, 건축계는 공동주택, 공공시설, 문화 인프라 등에서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들은 디자인의 우수성을 표출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도전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건축 작품들로서 한반도가 다음 세대에 직면하게 되는 통일이라는 당면과제를 함께 풀어나갈 중요한 키워드를 제공해 줄 것이다.

'from reality to next society' 라는 전시주제로 7개의 건축 작품과 도입부 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서울전에서는 전시기간 중 관람객의 건축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가와의 대화시간을 마련하여 상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예술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연극놀이교실’

아이들의 몸짓 언어 놀이 모든 것에는 아이들이 간직하고 있는 꿈이 들어있습니다. 예술극장연극놀이교실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라켓볼 때 세상은 꿈꾸는 아이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문예진흥원 예술극장에서는 2002년도부터 ‘어린이 연극놀이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연극놀이는 어린이들의 놀이과정과 표현방식을 연극과 교육에 적용시킨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이 연기자 또는 스태프로 참여하는 공연을 위한 연극과는 달리, 연극놀이는 참가자들이 주제와 상황에 따라 즉흥 연기 및 표현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극적 구체화 과정을 통해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발전시키고 탐구하는 가운데 창의력과 상상력, 사회성을 키워주고, 신체 표현 및 언어 구사력, 감각의 기민성 등을 길러준다.

아동들의 창의적 표현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생생한 예술교육 체험의 장

현재 예술극장에서는 6~7세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제3기 예술극장 어린이 연극놀이교실을 3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0주간 진행 중이다.

어린이들의 놀이과정과 표현방식을 연극과 교육에 적용시킨 프로그램으로 공연예술인이자 누구나 한번쯤 서보고 싶은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무대에서 극장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활용하여 대극장 무대, 분장실, 조명, 음향 등 탐방 프로그램과 함께 어린이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의 세계를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3기 어린이 연극놀이교실 프로그램의 주제는 ‘연극 놀이로 만나는 우리 문화’이다.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 궁금해지는 옛날 물건들, 옛날 어린이들이 깜깜한 밤이면 즐겨 들던 옛날이야기, 온 동네 아이들이 동구밖에 나와 울려 놀던 전래놀이를 오늘의 우리 어린이들과 연극놀이로 만나보고 있다. 아주 먼 옛날도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꼭 아이들만했을 때!! 이런저런 상상도 해보고 다른 사람도 되어보면서 아이들 스스로 축제를 창조하는 활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극장이 재미있고 열려진 공간임을 체험하는 예술교육의 소중한 프로그램이다.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어린이 미술교실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

우리는 재미있는 생각만 가지고 항상 신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고 그립니다.
남들이 할 것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만을 만들겠습니다.
어마도 우리가 주입이 되는 세상은 창조적인 일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멋있는 세상, 신나는 세상 속에 우리는 큰 꿈을 펼치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우리는 모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에서는 2002년 4월부터 어린이 대상 미술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미술교육 방법을 탈피해 자유로운 창작과 실기교육을 통해 창의력과 표현력, 미술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어린이 미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미술에 대한 단순한 기능을 가르치기보다는 어린이들이 자신 속에 내재된 표현의 욕구를 마음껏 펼치고, 또한 늘 새로운 욕구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 스스로 감각을 익히고 느끼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무엇인가 보여주려는 의욕을 가득 담고 작업실을 향해 들어서는 아이는 층계를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부터 활기차다는 뜻에서 따온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 명칭은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교육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수업 중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최고를 지향하여, 지도교사 역시 어린이 미술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사명감으로 가득 찬 전문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을 통해 수동적인 테크닉을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한 욕구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그 욕구가 끊임없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속에서 어린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법을 스스로 배우고, 높은 수준의 미적 감각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러한 교육 내용의 성과는 지도교사와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직접 기획하는 발표 전시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높은 성취감을 맛보게 하고 있다. 2003년도 발표 전시회는 '고래 등골이 오싹'이라는 주제로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마로니에 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선보이게 된다. 아울러 연간 1회 어린이들이 직접 쓴 글과 그림을 엮은 작품집을 발간함으로써 읽고, 쓰고, 그리는 표현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익혀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프로그램 안내〉

| 구 분 | 정원 | 시간(월~토) / 주 1회 수업 | | | | 비 고 |
|---|-----|--------------------------------|--------------------------|--------------------------|--------------------------|---------------|
| 제1작업실 | 5명 | 11 : 00~13 : 00 (2시간) | 14 : 00~16 : 00 (2시간) | 16 : 00~18 : 00 (2시간) | 18 : 00~20 : 00 (2시간) | * 일요일, 공휴일 휴강 |
| 제2작업실 | 8명 | | | | | |
| 제3작업실 | 8명 | | | | | |
| 3개반 | 21명 | * 수강대상 : 5세(유치원)부터 13세(초등학교)까지 | | | | |
| * 월 수강료 : 150,000원(문화사랑카드 소지자 10% 할인 / 2인 이상 1인 130,000원) | | | | | | |
| * 본 프로그램 수강생은 아카데미종합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 | | | | | |

- 수강신청 : 연중 접수 가능(단, 결원시 수강 가능)
- 연 락 처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
전화 02-7604-566(류화정) / 팩스 02-7604-780
- 수강료 납부(온라인 입금) : 기업은행 277-006764-01-242 / 예금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이달의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 (2003년 4월 1일~4월 31일)

| 분야 | 지 원 대 상 | | | | |
|----------|-------------------|-------------------------|--------------------------------------|--------------------|---------------------------|
| | 단체명(대표자) | 연락처 | 사업명 | 일 시 | 장 소 |
| 문학 |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 | 02-969-8851~3 | 한글날기념 전국 초중고학생 글짓기대회 등 4개 행사 | 3.2~10.31 | 영취원, 세종대왕기념관 |
| | (사)한국소설가협회 | 02-703-9837 | 미주이민 100주년기념 문학세미나(현지 기준 2003년) | 4.24~4.28 | 미국 하와이 |
| | (사)한국한시협회(하영실) | 02-2266-5675 | 제11회 전국한시백일장 개최, 한시학당 개설 운영 | 2.22~12.27 | 남산골 한옥촌, 한국한시협회 강당 |
| | 구로노동자문화회 | 869-2583 | 제18회 정기 문학강좌 | 4.15~5.18 | 구로노동자문화회 강당 |
| | 김신호 | 02-456-2102 | 시집 발간 | 4.15~4.25 | 문학이카데미 |
| | 김양선 | 033-257-6729 | 평문집 발간 | 1월~4.30 | 새미출판사 |
| | 김유정문학촌 | 033-261-4650 | 김유정문학제(제1회) | 4.25~4.27 | 김유정문학촌과 금병의숙 |
| | 김재순 | 02-2645-7104 | 소설집 발간 | 2.10~3.20 | 뿌리출판사 |
| | 민족문학작가회의목포지부 | 061-279-9838 | 제2회 도서지역 청소년 문학워크숍 | 4.1~10.31 | 전남 목포시 청소년수련관 외 2개처 |
| | 박옥실(박지현) | 02-503-0765 | 시조집 발간 | 1.1~3.30 | 서울 도서출판 태학사 |
| | 박완호 | 031-757-2170 | 시집 발간 | 3.1~3.30 | 도서출판 천년의시작 |
| | 송영 | 031-726-1819 | 소설집 발간 | 1.1~2.28 | 창작과비평가 |
| | 이병렬 | 02-2291-8166 | 소설집 발간 | 8.31~8.31 | 도서출판 깊은샘 |
| | 이상문 | 051-524-5949 | 동시집 발간 | 2.1~3.15 | 아동문예사 |
| | 이영범 | 02-977-3965 | 시집 발간 | 1.1~4.10 | 도움이출판사 |
| | 이정옥 | 02-916-4327 | 시집 발간 | 1.1~3.31 | 도서출판 다홍 |
| | 조준호 | 02-452-4167 | 동화집 발간 | 3.25~4.25 | 도서출판 마음푸른길(서울) |
| | 조태봉 | 031-563-4686 | 동화집 발간 | 1.30~4.20 | 도서출판 청동거울 |
| | 최성실 | 02-532-3743 | 평문집 발간 | 1.1~3.20 | 문학과학사 |
| | 한강희 | 061-722-4365 | 평문집 발간 | 1.1~3.31 | 도서출판 시와사람사 |
| 미술 | 한국시조시학회 | 031-249-9030 | 제주 거례시 문예강좌 외 1개소 | 4.12~4.13 | 제주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강원도 원주시 |
| | 한국여성문학인회 | 02-362-3687 | 제8회 작고문인 재조명(김일업) | 4.26~4.26 | 서울 플라자호텔 덕수홀 |
| | (사)민족사건기협회 | 02-736-7100/1 | 사건의 탐색(2003년도 기획전시) | 4.2~4.8 | 경인미술관(서울 인사동) |
| | 김지애 | 02-6094-6091 | 김지애 개인전 : Fly Together | 4.1~4.19 | 문화일보 갤러리 |
| 연극 | 대안영상문화발전소아이공(김연호) | 02-337-2870 | 영상미술과 디지털의 조우 : 영상 커뮤니케이션 : 포스트 스페이스 | 4.4~9.24 | 대안공간 루프갤러리, 일주아트 하우스 아트큐브 |
| | 서양미술사학회(정영목) | 02-880-7485 | 제8회 서양미술사학회 국제학술 심포지엄 및 논문집(19집) 발간 | 4.19~6.30 | 이화여대 SK관 |
| | 세종한글서예큰뜻모임 | 02-573-0457 | 제4회 세종한글서예 큰뜻모임 | 4.23~4.29 | 예술의전당 |
| 연극 | 극단76단 | 02-993-6383 | <루나지에서 춤을> 공연 | 4.1~5.4 | 비탕골소극장 |
| | 극단금병의숙 | 02-744-8169 | 어린이극 <아주 먼 옛날> 무료 순회공연 | 4.22~4.25 | 강원도(화천, 홍천, 철원, 춘천) |
| | 극단김동수컴퍼니 | 02-3675-4675 | <우동 한 그릇> 공연 | 4.11~7.13 | 김동수플레이하우스 |
| | 극단남비곰비 | 02-381-5520 | <생생이는 뭘 봤을까?> 지역 순회공연 | 4.21~9.13 | 경기도 지역 초등학교 7개처 |
| | 극단단막극장극단76극단예성동인 | 02-765-1544 | 2003 유진오닐 단막 페스티벌 개최 | 3.27~6.1 | 대חק로 단막극장 |
| | 극단미추(손진책) | 02-747-5161 | <허삼관매월기> 공연 | 4.10~4.20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
| | 극단백수광부 | 02-813-1674 | 가족뮤지컬 <넌 특별하단다> 순회공연 | 4.1~4.4 | 음성, 영주, 예천, 상주, 영덕 |
| | 극단성 | 031-245-4587 | <세일즈맨의 죽음> 순회공연 | 4.10~4.13 | 서산문화회관, 제천시문화회관 등 |
| | 극단오늘(김상열) | 02-723-3659 | Love Festival | 3.7~6.1 | 아리랑소극장 |
| | 극단즐거운사람들 | 02-794-0632 | 어린이 뮤지컬 <김치꽃 만두> 순회공연 | 4.8~4.20 | 전남 영광 외 5개 지역 |
| | 극단창작마을 | 02-777-7048 | 제7회 창작마을 단막극제 공연 | 3.28~5.11 | 명동예술극장(구 : 명동창고극장) |
| | 극단초인 | 02-744-6411 | 무언극 퍼포먼스 <가차> 순회공연 | 4.14~5.8 | 각 지역별 군단위 문화소외지역 8곳 |
| | 극단친구친구 | 053-611-7979 | 인형극 <차돌이와 바우의 모험> 공연 | 4.9~5.26 | 대구, 경북 소이병동(토·일·월 제외) |
| | 극단함께사는세상 | 053-427-8251 | <지키는 사람들> 순회공연 | 4월~11.30 | 경북 공단지역 복지관 및 강당 |
| | 극단함께사는세상 | 053-427-8251 | <엄마의 노래> 장애우 인식개선을 위한 초중등학교 방문공연 | 4.28~5.10 | 구미, 칠곡, 청도, 영천, 정선, 봉화 |
| | 극단현장 | 02-597-3516 | 근로청소년을 위한 연극놀이 <꽃피고 꽃지는 줄 모르고> | 4.1~12.31 | 인천, 원주, 부산, 성주, 광주, 목포 등 |
| | 나우리연극학교 | 02-381-5520 | 찾아가는 문화활동 - 연극놀이로 배워요! | 4.14~4.20 | 연천, 양주, 포천, 가평 초등학교 |
| | 박민선 | 02-3672-7556 | 해위연수(일본 신극립극장 및 현대연극협회) | 4.18~10.15 | 일본 동경신극립극장/현대연극협회 |
| |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 02-533-7317 | 청소년을 위한 연극교육 | 4.2~11.30 | 서울, 경기지역 학교 4곳 등 |
| | 예술기획축제를만드는사람들 | 02-741-3934 | 어린이미당극 <백주거인> 공연 | 4.16~10.31 | 서울, 경기지역 초등학교 내(운동장) |
| 인형극단파브리 | 031-904-9169 | 도서관을 찾아가는 인형극 | 3.22~6.21 | 서울시내 22개 도서관 | |
| 인형극단해바라기 | 02-495-4236 | 문화소외지역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 순회공연 | 3.12~4.11 | 문경, 삼척, 정선, 여주, 양평 | |

| 분야 | 지 원 대 상 | | | | |
|------------------------|---------------------------------|------------------------------|---|--------------------------------|---|
| | 단체명(대표자) | 연락처 | 사업명 | 일 시 | 장 소 |
| 연극 | 한국연극교육학회 | 02-2290-0720 | 2003년 춘계 정기 학술 심포지엄 - 유초등 연극교육의 현황과 전망 | 4.19 | 동국대학교 |
| | 혜화동1번지3기동인 | 02-762-0810 | 2003 혜화동 1번지 3기동인 페스티벌 | 3.20~6.8 |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 |
| 무용 | 강원무용연구회 | 033-250-8743 | 제7회 2003 사랑과 춤의 만남 | 4.18~4.18 | 춘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 |
| | 경희출타래무용단 | 02-961-0397 | 소외계층 위문 공연 | 4.26~4.26 | 신내동 노인요양원 |
| | 김영숙늘취무용단 | 02-3277-2590 | 나비연가 | 4.29~4.30 | 가나아트센터 야외극장 |
| | 김순애우리춤연구회 | 055-248-7506 | 사회복지시설 순회 무용공연 | 4.7~4.8 | 애양원 외 3곳 |
| | 김은주 | 02-3408-3471 |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무용기획 공연 | 4.24~4.30 | 은평천사원(24), 영락양로원 (하남, 29), 가평꽃동네(30) |
| 음악 | 현대무용단푸름 | 02-2292-3329 | 2003 푸름 찾아가는 현대무용 | 4.5~4.6 | 웅산, 분당, 일산공원 |
| | 두물위크숍 | 031-592-3336 | 관악기와 함께한 서양음악사 페스티벌 | 4.20~10.12 | 두물위크숍 (4.20/5.18/6.15/9.2/10.12) |
| | 부암아트(지주은) | 02-391-9631 | 쉽게 듣는 현대음악 2003 | 4.7~4.11 | 부암아트홀 |
| | 부암아트(지주은) | 02-391-9631 | 유아음악회 | 3.1~12.31 | 부암아트홀(매일 넷째주 목·금요일) |
| | 서울오텍트합창단(박치용) | 02-523-7295 | 제51회 정기연주회 | 4.1.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 | 서울오라토리오 | 02-587-9277.8 | H.S. Bach <Matthaus Passion> | 4.14~4.14 | 예술의전당 |
| | 서울윈드앙상블(서현석) | 02-415-5510 | 제75회 정기연주회 | 4.29~4.29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 | 수리오페라단 | 031-396-9336 | 동화오페라 <신녀와 나무꾼> 재공연 | 4.26~4.27 | 천안시민회관 대공연장 |
| | 실내악단화음 | 02-544-9092 | 미술이 있는 가족음악회 | 1.1~12.31 | 서호미술관(매월 셋째 토요일, 단 2월, 8월 제외) |
| | 윤지희 | 02-2290-1259 | 논문 공모 발간 및 주제 세미나 | 4.29 | 단국대학교 난파음악관 소연주실 |
| | 파트넷21 | 02-2292-5885 | 베토벤 현악4중주 전국 시리즈 연주 | 4.12~11.9 | 영산아트홀(4.12/11.9) |
| | 한국소극장오페라연합회(장수동) | 02-741-7389 | 제5회 서울소극장오페라 페스티벌 | 2.28~4.7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
| | 한국장애인소리예술단(황재환) | 053-655-3341 | 장애인의 날 기념 사랑의 음악회 | 4.14 |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강당 |
| | 한양대학교음악연구소 | 02-2290-1512 | 르네상스, 바로크음악 정격연주의 도입을 위한 공연 및 국제학술회의 | 4.30~11.7 | 금호아트홀, 영산아트홀, 예술의전당, 백남음악관 |
| | 전통예술 | 국제민속축적기구협의회한국위원회 | 02-466-2174 | 제11회 국제 KARSİYAKA 어린이 민속축적전 참가 | 4.18~4.25 |
| 남산놀이마당 | | 051-516-4434 | 청소년을 위한 우리문화 순회공연 | 4.1~6.20 | 부산, 김해, 진해지역 학교운동장 및 강당 |
| 놀이패마루 | | 02-582-0982 | 어르신을 위한 마당놀이 순회공연 - 도깨비타령 | 4.1~6.30 | 노인복지시설 및 농어촌지역 8개처 |
| 문화미당아사달 | | 043-544-4669 | 보은동화극 중 함께 나누는 행사 | 4.11~4.13 | 보은 북식 장안 및 배태공원 |
| 송파민속보존회 | | 02-412-8665 |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 4.27~4.27 | 서울놀이마당 |
| 안동문화원 | | 054-859-0825 | 전국여성민속한마당 | 4.26~4.27 | 안동시립민속박물관 |
| 양정화무용단 | | 02-3453-72011 | 양정화와 함께하는 우리춤 | 4.18~4.18 | 국립국악원 우연당 |
| 장애인복지법인향림원기독교문화 동아리 | | 031-880-5230 | 장애인문화복지 증대와 도예향수기회 확대 위한 도자기 제조기술 지도 | 3.3~10.31 | 향림원(장애인복지법인) |
| 조수현 | | 02-596-0195 | 제1회 가야금 독주회 | 4.23~4.23 | 국립국악원 우연당 |
| 한국공예예술가협회 | | 02-779-0886-7 | 제99회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 전통공예특별전 | 4.30~5.11 | 프랑스 파리 |
| 한국음악발전연구원 | | 02-333-0523 | 제8주년 정기연주회 | 4.11~4.11 | 국립국악원 예약당 |
| (사)강원소리진흥회 | | 033-252-1927 | 강원 3색 | 4.8~4.9 | 문화일보홀 |
| 인디/ 대안/ 대중 | (사)민예총목포지부 | 061-243-9786 | <역사의 거리> 공연여행 | 4.5~4.6 | 목포 구일본명사관, 구동양척식주식회사, 구일본거리 |
| | 동춘극예단(박세환) | 02-6383-9141 | 서커스(극예) 공연 | 1.1~12.31 | 전국 일일 |
| | 시노래모임나팔꽃 | 02-322-5721 | 시노래콘서트 <작게, 낮게, 느리게 2003>(전국 순회공연) | 4~12월 | 제천, 거제도, 부천, 인천, 광명 등 |
| | 인광준 | 033-254-5168 | PC를 이용한 3차원 가상현실 아트전 <사이버제네틱스> | 4.7~4.12 | 서울대학교 문화관 전시실 |
| | 임산 | 02-373-5405 | <더 스테이션> 전시, 전자음악 공연, 워크숍 | 4.23~5.3 | 아트스페이스슈, the.stationcrew.com |
| | 출공장 | | 출공장 기획공연 <아사바 댄스> <토요출판> | 4.19~5.17 | 출공장 |
| | 크로스오버서울극제즉흥댄스 페스티벌운영회 | 02-3674-2210 | 서울 국제 크로스오버 즉흥춤 댄스 페스티벌 | 4.22~4.27 | 문화회관 소극장, 경성대 소극장 |
| 문화 | (사)민족사진가협회 | 02-736-7100/1 | 어르신 사진찍어 드리기 | 4~10월 | 제주도 등 3개 지역 |
| | (사)철도지하철예술진흥연구원 | 02-3472-0743 | 철도, 지하철 문화미당 Rail Art | 1.3~12.31 | 국철 및 1~8호선 지하철 역사 내에서 |
| | (사)철도지하철예술진흥연구원부산지부 덕포진교육박물관 | 051-635-3104 031-989-8580 | 부산지하철 문화미당 교육 賞狀 100년展 | 1.3~12.23 4.15~12.31 | 부산지하철 서면역 문화행사장 덕포진 교육박물관 |